

나카노시마



덴노지



오사카성



나카이



오사카 뮤지엄 트립

大阪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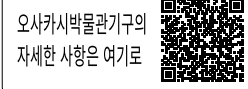
OSAKA-HAK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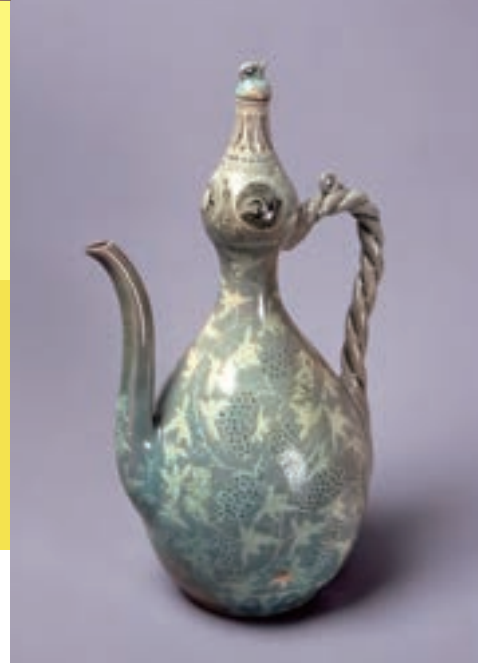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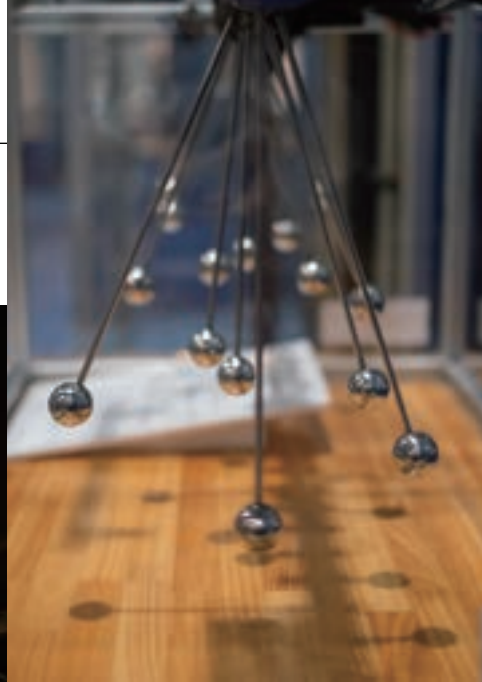
오사카의 보물이 지금, 모습을 드러낸다.



지방독립행정법인 오사카시 박물관기구
Administrative Agency for Osaka City Museums

문의처 | 소재지 ··(우) 540-0008 오사카시 주오구 오테마에 4-1-32 오사카역사박물관 내
전화 ··06-6940-4330(대표) FAX ··06-6940-0551





목차

들어가며 1

오사카시립미술관 3

오사카시립 자연사박물관 5

오사카시립 동양도자미술관 7

오사카시립과학관 9

오사카역사박물관 11

오사카 나카노시마미술관 13

오사카의 보물이 지금, 모습을 드러내다.

2025년 오사카·간사이만국박람회에 맞춰 오사카시립미술관, 오사카시립 자연사박물관, 오사카시립 동양도자미술관, 오사카시립과학관, 오사카역사박물관, 오사카 나카노시마미술관 총 여섯 곳에서 ‘오사카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오사카에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번영과 함께 선조들이 수집하고 계승해 온 ‘오사카의 보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중에서도 특히 수집에 참여한 선조와 계승의 이력을 통해 보물을 가꾸어 온 도시 오사카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 120점을 ‘오사카의

보물’로 선정해 ‘오사카박람회’에서 선보입니다. 새로운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오사카의 보물’ web 전시회를 비롯하여 박물관·미술관을 둘러보며 즐기는 플랜과 관광 정보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과 이 도시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 뮤지엄이 개최하는 ‘오사카박람회’. 여기에서는 상술한 여섯 곳의 관람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문화도시 오사카에 남겨진 보물과의 만남과 거리 가득히 사람들이 자아낸 오사카의 힘을 꼭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이콘 설명

- 주소
- 티켓 정보
- 자녀 동반 가능
- 전화번호
- 음성가이드
- 웹사이트
- 개관 시간
- 장애인 편의시설
- SNS
- 휴관일
- 기저귀 교환대
- 레스토랑
- 교통 안내

지방독립행정법인 오사카시박물관기구 발행
초판 발행 2024년 1월





리뉴얼 예상도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덴노지. 오사카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신기한 지역입니다. 6세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가 느껴지는 시텐노지절이 있고, 신세카이 구역의 정겨운 풍경이 질게 남아 있으며, 아베노 하루카스 같은 현대적인 초고층 빌딩도 즐비합니다.

이곳에 있는 덴노지공원 안에는 마치 1930년대에 들어선 듯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오사카시립미술관이 있습니다. 과거 스미토모 일가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세워졌으며, 바로 근처에는 교토에서 유명했던 정원사, 오가와 지헤(小川治兵衛)가 조성한 ‘게이타쿠엔’이라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덴노지 동물원까지 있는 등 오사카 한복판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 자연이 있습니다.

미술관은 기나긴 건설 중단 기간, 세계 공황과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1936년에 어렵사리 개관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서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빛나는 대리석들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컬렉션은 먼 나라의 귀중한 미술품부터 이곳 아시아의 보물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아시아의 고미술 작품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매혹시킵니다.

이 미술관은 전시에도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가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약 8,500건의 소장품과 사찰 등에서 위탁받은 작품을 수시로 전시하며, 지역 주민들은 일본의 미술과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 중요시하며 일본 미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현관을 나서면 ‘덴시바’라는 널찍한 잔디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에 늘어진 레스토랑에서 휴식과 함께 맛있는 식사와 음료를 즐기며 오사카의 예술과 문화를 만끽한다면 근사한 오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학예사의 *Museum Column*



일본 증권세 회화 학예사 지넨 사토루

우연한 만남으로
세상에 나온 한 명의 화승.

원래부터 미술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일본 미술사(史)의 길을 걷기 시작해 학예사가 된 것 또한 스스로의 선택보다 대학 교수님과 만남과 시기 등 어떠한 우연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 병풍의 작가를 찾아낸 것도 그런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학예사로 활동한 지 30년이 넘어 인생의 마무리를 의식하기 시작할 무렵, 미술관 개수공사를 위해 수장고를 재조사하던 중 ‘도쿠초 필(獨長筆)’이라는 낙관이 있음에도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장부에 작자명이 비어 있던 병풍을 알게 됐습니다. 자료가 적어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작품은 흔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작품도 언젠가 빛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후 종이상자에 자료를 정리하던 중 ‘도쿠초’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도쿠초 쇼쿄(獨長性亨)라는 임제종 화승(畵僧)의 존재와 그의 제작 활동에 관한 논문이었죠. 곧바로 도쿠초의 작품을 소장 중인 절들을 찾아 병풍의 작가가 도쿠초 쇼쿄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0여 년의 학예사 인생에서 ‘미술사를 뒤흔들 대발견’은 아니지만, 43년 동안 비어 있던 소장품 장부의 작자명을 새로 써넣을 기회 정도는 찾아오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신기한 운명의 만남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쿠초 쇼쿄(獨長性亨) 필 《대나무와 팔가조 도병》 6폭 1벌 에도시대·17세기[다만(田万) 컬렉션]



오사카시립미술관



☎	(우) 543-0063 오사카시 덴노지구 자우스야마초 1-82(덴노지공원 내)
☎	06-6771-4874
🕒	오전9:30~오후5:00(입장은 폐관 30분 전까지)
🗓	월요일(공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 연말연시
📍	JR ‘덴노지’ 중앙 출입구 개찰, 오사카메트로 미도스지선·다니마치선 ‘덴노지’ 15·16번 출구, 킨테쓰 ‘오사카아베노바시’ 서쪽 개찰구, 한카이 전차 우에마치선 ‘덴노지예키마에’ 에서 북서쪽으로 약 400m
🌐	www.osaka-art-museum.jp/
📱	Insta/X: @ocmf_a_since1936

휴관 기간: 2022년 9월 26일~2025년 봄



리뉴얼 정보

※예상도

1936년 개관 이래 최대 규모의 개수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리뉴얼 후에는 게이타쿠엔을 전망할 수 있는 카페가 입점할 예정입니다. 2025년 봄 리뉴얼 개관을 기대해 주세요!



2002년 FIFA 월드컵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나카이공원에는 생명의 역사를 깊게 탐구하는 오사카시립 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오사카를 시작으로 여러 지역 자연의 숨결이 담긴 약 1만 점의 전시 자료가 가득하며, 찾는 사람들에게 생태계 속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입구 앞에는 박물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참고래, 혹등고래, 향유고래의 거대한 골격 표본이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력 넘치는 나우만코끼리의 복원 모형이 관람객을 반기는 로비 '나우만 홀'에서는 마치 선사시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등 인간과 자연은 어떻게 공존해 왔는지, 또 그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전시가 가득합니다.

전시실 '가까운 자연'에서 시작하는 여행에서는 오사카라는 도시가 품은 자연환경의 다양성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외래종 문제도 소개하는 장소로, 외국을 오가는 선박이나 비행기에 섞여 들어 우연히 국내로 유입된 생물이나 씨앗 등 우리 생활에 의외의 형태로 영향을 주는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또한 공룡의 다리뼈와 커다란 조개 등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전시물이 관내에 있으며, 2층에 있는 3개의 전시실 '생명의 진화', '자연의 은혜', '생물들의 생활'에서는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물종이 생태계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재조명하는 곳입니다.

교육적인 행사도 다양합니다. 자연관찰회와 워크숍 등은

자연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키울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특별전과 강연회도 개최하는 등 지식의 탐구와 공유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박물관은 자연 보호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손상된 귀중한 표본을 복원하고자 노력하는 등 지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박물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시립 자연사박물관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오아시스.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탐구의 여행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학예사의 *Museum Column*



식물생태학 학예사 요코가와 마사시

바다를 건너, 절벽을 넘어.
식물 위해서라면 어디라도.

식물상 연구는 각 지역에 어떤 식물이 자라는지 밝혀내는 분야입니다. 시대에 따라 자라는 식물도 변화하므로 각지 현장에서 직접 뛰며 채집한 식물을 표본으로 만들어 연구에 활용합니다. 이 일련의 연구 활동은 저의 취미 생활과 같습니다. 조사를 위해 높은 산도 깎아지른 절벽도 마다하지 않으며, 뿌리부터 이파리까지 깨끗하게 채취한 표본을 바라보다 보면 시간을 잊곤 합니다. 이 꼬마부들은 홋카이도 오쿠시리섬(奥尻島)에서 다른 식물을 찾아 콘크리트 벽을 타고 넘었을 때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부들을 아시는 분은 많지만, 그중 한 종류인 꼬마부들은 재래종인지 외래종인지도 불명확한 수수께끼의 식물입니다. 다른 연구자에게서 홋카이도에 재래종 꼬마부들이 자생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여서 발견했을 때 '설마?'하며 크게 흥분했습니다. 바로 채집해 과거 문헌과 홋카이도 내 표본고를 조사했고, 오쿠시리섬의 신산중(해외에는 있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처음 발견된 종) 식물로 보고했습니다. 여러분께는 흔한 식물처럼 보여도 연구자에게는 엄청난 발견입니다. 표본은 채집자의 이름과 채집한 날짜, 장소를 기록해 연구 자료로 보관되기 때문에 훗날 다른 연구자가 '과거에 요코가와라는 사람이 꼬마부들을 발견했다', '채집할 때 매우 떨렸을 것 같다'고 생각할 것을 상상하면 연구자로서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요코가와 씨가 채집한 꼬마부들 표본



오사카시립 자연사박물관



☎	(우) 546-0034 오사카시 히가시시미요시구 나카이공원 1-23
☎	06-6697-6221
🕒	오전9:30~오후5:00(11월~2월은 오후4:30 폐관) (입장은 폐관 30분 전까지)
🗓	월요일(공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 연말연시
📍	오사카메트로 미도스지선 '나가이' 3번 출구에서 약 800m, JR '나가이' 동쪽 개찰구에서 약 1km
💰	성인 300엔, 고등학생·대학생 200엔, 중학생 이하 무료 ※특별전 요금 별도
🌐	www.omnh.jp/
📱	Facebook: facebook.com/osakashizenshi/ X: @osaka_shizenshi Insta: @osaka_shizenshi_koho



관람 포인트

박물관이 소장한 희귀한 나비 등의 컬렉션. 전세계에서 수집한 이 방대한 양의 컬렉션을 통해 각각의 다양한 형태는 물론 서식지에 맞춰 진화한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기는 오사카시립 동양도자미술관의 매력. 1982년 개관 때부터 이곳은 도자기가 가득한 보물 상자와 같았습니다. 중국 후한부터 명나라 시대를 장식한 144점의 아름다운 도자기. 그리고 고려시대부터 조선 왕조의 훌륭한 793점의 도자기가 있습니다. 아타카컬렉션으로 알려진 이 명품들은 사실 뽀뽀이 흩어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미토모그룹이 아타카컬렉션을 모두 기증한 덕분에 무사히 오사카시의 보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컬렉션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도자기를 중심으로, 특히 이병창(李秉昌) 박사의

한국 도자기의 기증품이 추가되면서 무려 5,732점에 달하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또, 관람객의 의견에 따라 90년대 초부터 일본의 작품도 다수 확보했으며, 오늘날 민예운동으로 유명한 인간국보 하마다 쇼지(濱田庄司)의 작품 등도 귀중한 컬렉션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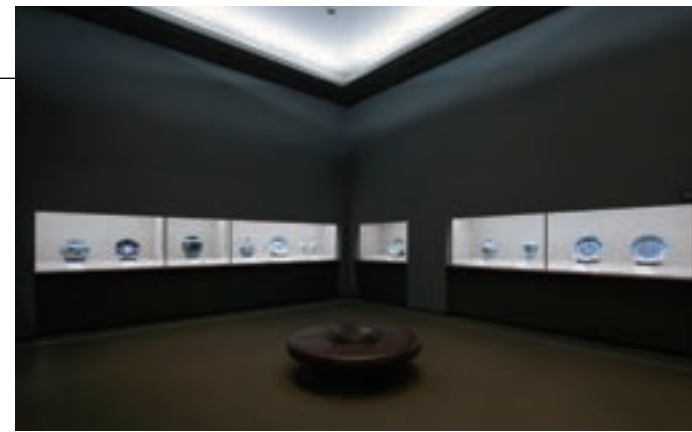
전시에서는 약 300점의

작품을 자세히 감상할 수 있도록 시대와 기법에 따라 분류하여 선보이고 있으며, 그중에는 국보 2점과 중요문화재 13점도 있습니다. 또, 현대 도예 코너에서는 현대 작가들의 새로운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 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힘찬 느낌의 중국 도자기는 밝은 전시실에서 보아야 선명한 색채를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도자기는 천장이 낮고 차분한 조명 아래서 보아야 고요한 분위기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일본 도자기 전시실은 바닥과 가까운 위치에 전시되어 있어 마치 일본식 방 안에서 감상하는 것처럼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특히 우리 미술관만의 자연 채광 전시실에서 감상하는 청자는 부드러운 자연광 속에서 그 아름다움이 배가됩니다. 세계 최초의 자연 채광 전시에서는 햇빛에서 터키옥색으로 변하는 청자의 섬세한 색조 변화에 놀랄 것입니다. 또한, 오키 쇼이치로(沖正一郎)의 컬렉션 중 1,200점에 달하는 중국의 코담배 용기인 비연호도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일본어는 물론 영어 해설을 통해 흙과 물, 불의 융합에서 태어나 시공간을 뛰어넘어 아름다움을 발하는 도자기를 전세계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오사카시립 동양도자미술관의 예술과 역사가 자아내는 이 독특한 공간에서 감성을 키우고 영감을 얻는 한때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술관에서 만나요!



학예사의 *Museum Column*



도자기 학예사·관장 모리야 마사시

도자기에 심취하는 나날 속에서 두 도요(陶窯)의 관계성에 몰두하다!

고고학 연구에 열중하던 학생 시절, 박사 과정 후기를 시작하려던 중 인연이 되어 오사카시립미술관의 학예사가 되었고, 그렇게 30여년이 지났습니다. 박람회를 수없이 준비하며 시대와 국가 관계없이 다양한 양식의 도자기를 접했습니다.

2022년도부터 오사카시립 동양도자미술관의 관장이 되어 국보 등 훌륭한 작품을 소장하는 이곳에서 도자기에 빠져 행복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도자기들 중에 지금 가장 심취해 있는 것은 중국 복송 시대부터 원나라 시대에 걸쳐 발전한 정요(定窯)와 자주요(磁州窯)라는 두 도요의 흥미로운 관계입니다. 일반 백성을 위한 일용품을 생산하던 자주요는 정요가 만든 귀족들이 선호하는 아름다운 백자를 따라 만들고자 흰색 칠을 했지만, 기술과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깨닫고 방침을 바꿨습니다. 흰색 칠 위에 흑니(黑泥)를 바른 후 깎아 문양을 새기는 '백지흑소락(白地黑搔落)'이라는 기법을 고안했죠.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정요가 '우리도 유행을 따르자.'며 소락 기법을 가져와 자신들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장이 정반대가 되어 자신들을 따라하던 곳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품으로 비교하면, 자주요의 작품은 언뜻 고급스럽게 보이지만 바닥과 가까워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까지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정요의 작품은 세세한 곳까지 장인의 손길을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같은 기법이지만 두 도요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작품 배경에 있는 인간 군상을 탐구하는 것도 도자기를 즐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백자수화 모란당초문병



오사카시립 동양도자미술관

	(우) 530-0005 오사카시 기타구 나카노시마 1-1-26
	06-6223-0055
	오전9:30~오후5:00(입장은 폐관 30분 전까지)
	월요일(공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 전시 교체 기간, 연말연시
	오사카메트로 미도스지선/게이한 본선 '요도야바시' 1번 출구, 오사카메트로 사카이스지선/게이한 본선 '기타하마' 26번 출구에서 각 약 400m, 게이한 나카노시마선 '나니와바시' 인근
	전시회에 따라 다름 중학생 이하 무료
	www.moco.or.jp/
	Insta: @moco_press

휴관 기간: 2022년 2월 7일~2024년 봄



리뉴얼 정보

개수 공사가 끝난 오사카시립 동양도자미술관의 입구는 높이 7m의 유리 건물로 네 구석에 기둥이 없는 대신 중앙의 나선 계단이 지붕을 떠받치게 됩니다. 개방감 있는 새로운 로비는 2024년 봄 완공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오사카시립과학관



☎	(우) 530-0005 오사카시 기타구 나카노시마 4-2-1
☎	06-6444-5656
🕒	오전9:30~오후5:00(전시장 발권 및 입장은 오후4:30까지, 천체투영관 마지막 상영 시작 시간은 오후4:00)
🗓	월요일(공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 연말연시, 임시 휴관 있음
📍	오사카메트로 요쓰바시선 '히고바시' 3번 출구에서 서쪽으로 약 500m, 게이한 나카노시마선 '와타나베바시' 2번 출구에서 남서쪽으로 약 400m
🎫	전시장: 성인 400엔, 고등학생·대학생 300엔, 중학생 이하 무료 ※천체투영관 요금 별도
🌐	www.sci-museum.jp
📱	X: @osaka_kagakukan, @gakugei_osm Insta: @osakasciencemuseum

휴관 기간: 2023년 11월 6일~2024년 여름



리뉴얼 정보

오사카시립과학관은 리뉴얼을 거친 후 2024년 여름 재개관합니다. 이번 리뉴얼의 슬로건은 '유일한, 모두가 과학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자'입니다. 과학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진화할 과학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사카가 자랑하는 과학 거점, 오사카시립과학관. 이곳은 단순한 관람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미래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꿈과 낭만 가득한 보물 상자입니다. 서양식 건축물과 미술관이 점재한 나카노시마 구역에 오사카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관한 이곳에서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과학의 현상과 만날 수 있습니다.

4층에 올라서면 우주의 신비와 만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운석을 손끝으로 직접 느껴 보거나 달에서의 사과 무게를 체험한다면 그 어떤 수업보다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눈 앞에 펼쳐지는 태양의 3D 모델을 통해 그 크기와 구조에 대해 배울 수도 있습니다.

3층은 우리의 일상에 흔히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과 식물, 천연 화학성분, 의약품의 놀라운 성질에 초점을 맞춘 곳입니다. 이 매력적인 곳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가정과 학교, 직장 등지에서 접하는 일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오며, 거기에 잠들어 있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층에 있는 전시장은 마치 두근거림으로 가득한 실험실과 같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버튼을 누르고 레버를 당기는 아이들의 모습이 이곳이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배움과 놀이를 위한 실험실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과학관인 만큼 일본의 과학 역사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로봇인 가쿠텐소쿠(學天則·학천칙)의 모형이 있으며, 중간자 이론을 제시해 노벨상을

수상한 유카와 히데키(湯川秀樹) 박사의 획기적인 연구도 이곳에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체투영관을 잇으면 안 됩니다. 2022년에 재단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천체투영관으로, 좌석을 전혀 올려다본 직경 26.5m의 천장에는 우주가 펼쳐집니다. 시간마다 바뀌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여러분도 분명 마음을 빼앗길 것입니다. 스태프의 생생한 해설을 들으며 도심 속 밤하늘에 떠 있는 별에 대해 배우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오감을 충분히 사용한 후에는 과학관 내 카페에서 한숨을 돌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가게에서 선물용으로 오리지널 기념품을 구매하시길 추천합니다.

오사카시립과학관은 과학의 매력에 가슴이 설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만 가능한 경험을 여러분도 꼭 즐기시기 바랍니다.



학예사의 Museum Column



천문학 학예사 이시자카 지하루

온 우주를 잇는 진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기적.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곧잘 어둠 저 너머의 다른 세계를 상상하거나 우주여행을 공상하곤 했습니다. 우주에 대한 동경이 배움으로 바뀌어 학예사가 된 지금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우주의 수수께끼를 생각하면 가슴이 뜹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끌리는 분야는 보이지 않는 중력의 작용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중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중력에, 지구는 태양의 중력에, 태양은 다른 별들과 함께 은하의 중력에, 우리 은하는 다른 은하와 중력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어난 것도, 태양이 태어난 것도, 은하가 태어난 것도 중력의 작용 덕분입니다. 중력에 끌려 물체가 모일 때 중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빠르게 끌려 소용돌이를 만듭니다. 이를 '케플러의 행성운동법칙'이라 부릅니다. 중력의 작용으로 생겨난 결과에 의해 지구와 태양, 다른 별들과 은하는 모두 회전을 합니다. 중력의 존재는 우주의 모든 곳을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태양과 같은 항성은 말 그대로 별처럼 많으며, 그 주위를 도는 행성은 몇천씩 발견됩니다. 하지만 지구처럼 생명이 탄생한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구에 생명이 탄생하고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는 아득할 정도로 많은 기적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우주를 잇는 '중력'이라는 진리와 우리가 여기 있는 '기적'을 여러분과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느끼고 싶은 마음으로 플라네타륨 해설에 임하고 있습니다.



케플러 모션 Neo



녹음이 우거진 오사카성 공원과 나니와 궁터 공원에 인접한 오사카 역사박물관은 ‘도시 오사카’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건물입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고대부터 근대, 현대까지 오사카의 다양한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선 입구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10층으로 가면, 그곳은 이미 나라 시대에 지어진 나니와 궁의 대극전(大極殿) 안입니다. 실물 크기로 복원된 공간에는 붉게 옷칠 된 직경 70cm의 둥근 기둥들이 늘어서 있으며, 당시 궁정 생활을 장식했던 관인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눈 아래 펼쳐진 나니와 궁터 공원과 오사카성 공원의 전망은 최고의 포토 스폿입니다. 또, 지하에 보존된 나니와 궁터에서는 견학 투어도 실시 중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9층으로 내려가면 오다 노부나가와 싸운 혼간지 시대의 오사카에 도착합니다. 에도 시대 구역에서는 분라쿠 인형 ‘나니와야’의 수로안내인을 따라 수도(水都)의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1/20 크기의 미니어처 모형으로 재현한 복적거리의 거리에는 활기 넘치는 사람들의 생활이 생생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8층은 나니와 고고연구소입니다. 실물 크기로 재현된 발굴 현장을 배경으로 고고학의 조사 방법과 유구, 유물을 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토기 퍼즐이나 지층 퍼즐 등 체험형 프로그램도 인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7층에는 지금도 그때의 정취가 남아 있는 그리운 오사카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이쇼 말기~쇼와

초기 가장 붐볐던 신사이바시지 거리, 도톤보리와 같은 도시의 모습을 크기, 분위기 그대로 가져와 현실적으로 재현. 교외 주택과 작은 공장, 도톤보리카도자(도톤보리 극장)까지 실물 크기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기록 영상과 함께 변영한 근대 도시 오사카의 거리를 거닐 수 있습니다.

오사카 역사박물관에서 오사카의 역사가 가진 깊이와 독특한 매력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학예사의 *Museum Column*



민속학 학예사 다와라 가즈마

산과 들, 도시를 걸으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눈에 비치는 풍경, 가슴에 남는 말 너머에는 사람이 있다.

민속학이란 세대를 초월해 전해진 문물, 즉 민속으로부터 사람들의 생활상과 역사에 대해 생각하는 학문입니다. 민속학에서는 대상이 되는 지역을 실제로 돌아보며 보고 듣는 것을 토대로 식문화와 전통 행사, 신앙, 습관 등에 대해 생각합니다. 언뜻 보면 민속은 지방 마을에만 남아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사카의 거리를 걷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민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7층에 전시된 미즈노미지장(水呑地藏)을 복원한 모형입니다. 지금의 주오구 우치쿠호지마치라는 지역에 모셔져 있으며, 현재는 장소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역 사람들의 깊은 신앙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즈노미지장이 각기병에神通하다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매달린 등롱(초롱)을 살펴보면 ‘가와치코쿠주산토게(河内国十三峠)’라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오사카부 야오시 고다치에 위치한 주산고개(十三峠)를 말합니다. 이 지장은 주산고개의 미즈노미지장을 나누어 모신 것입니다. 주산고개의 미즈노미지장의 앞에는 영수가 샘수인데, 그 물이 각기병 등 여러 병에 효과가 있어 숭배되어 왔습니다. 길가의 작은 사당에서 도시 오사카와 여러 지역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연결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민속학의 매력입니다. 박물관 밖으로 한 걸음 나간 곳에 민속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미즈노미지장



오사카역사박물관



☎	(우) 540-0008 오사카시 주오구 오테마에 4-1-32
☎	06-6946-5728
🕒	오전9:30~오후5:00(입장은 폐관 30분 전까지)
🗓	화요일(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연말연시
🚶	오사카메트로 주오선·다니마치선 ‘다니마치4초메’ 2·9번 출구
🎫	성인 600엔, 고등학생·대학생 400엔, 중학생 이하 무료 ※특별전 요금 별도
🌐	www.osakamushis.jp/
📱	X: @naniwarekihaku Insta: @osaka_museum_of_history



관람 포인트

에도(江戸, 지금의 도쿄) 및 교토와 함께 시바이(芝居·일본 전통연극)의 중심지였던 오사카. 9층의 ‘가도노시바이 복원모형’은 1838년(덴포 9년) 1월 흥행 상황과 거리의 활기를 재현한 모형입니다.



오사카 나카노시마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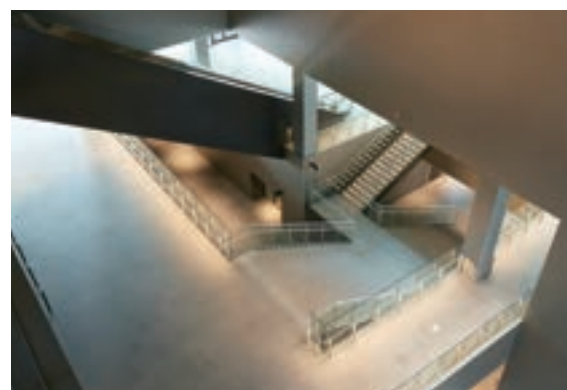
☎	(우) 530-0005 오사카시 기타구 나카노시마 4-3-1
☎	06-6479-0550
🕒	오전10:00~오후5:00(입장은 폐관 30분 전까지)
🗓	월요일(공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 전시 교체 기간, 연말연시
📍	게이한 나카노시마선 '와타나베바시' 2번 출구에서 남서쪽으로 도보 약 5분, 오사카메트로 요쓰바시선 '히고바시' 4번 출구에서 서쪽으로 도보 약 10분, JR '후쿠시마', '신후쿠시마' 2번 출구에서 남쪽으로 도보 약 10분
📧	전시회에 따라 다릅니다.
🌐	nakka-art.jp/
📱	Insta/X/Facebook: @nakkaart2022

오사카 나카노시마미술관은 2022년 2월 오사카시의 중심부 나카노시마에 새로 개관한 미술관으로, 현대적이며 눈길을 끄는 독특한 외관의 예술 명소입니다. 건축 모티프는 프랑스어로 '자유롭게 걷는 작은 길'을 의미하는 '파사주(passage)'이며, 미술 애호가는 물론 다양한 사람이 누구나 가볍게 찾을 수 있고 관람객이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5층으로 되어 있으며, 복잡하게 이어진 플로어와 커다란 아트리움이 특징적입니다. 때문에 천장과 창문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이 입체감을 더해 길거리를 걷는 것처럼 즐거운 관람이 가능합니다. 건물 입구는 여러 방향으로 열려 있고, 1층과 2층의 파사주는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오사카의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며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파사주는 나카노시마에 새로운 사람의 흐름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5층과 4층의 2개 층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는 일본 국내외의 훌륭한 작품을 소개하는 대규모 기획,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 오사카 나카노시마미술관만의 콘텐츠, 오사카의 예술 무대를 발굴하는 의욕적인 주제 등 매우 다양합니다. 컬렉션에는 19세기 후반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6,000점이 넘는 일본과 해외의 대표적인 작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본화와 유채화, 조각, 수채·소묘, 판화, 사진, 영상, 그래픽 디자인, 프로덕트 디자인 등으로 분야도 폭넓습니다.

당 미술관은 '협동하는 미술관', '함께 가르치는 미술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여러 전문가와 협업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300명 수용 가능한 홀과 워크숍 룸, 야외 잔디광장 등이 있어 회의나 리셉션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중시하며, 잔디광장에서 마르쉐를 개최하거나 겨울에 조명 장식을 선보이는 등 지역 주민들이 즐기고 휴식하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단순한 예술품 전시장을 넘어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오사카의 매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사카 나카노시마미술관은 아름다움과 건축, 지역 사회와의 융합을 즐기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문화의 매력을 만나 마음 넉넉한 한때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예사의 *Museum Column*



디자인 학예사 기타히로 마키

30살에 세상을 떠난 사에키 유조(佐伯祐三)의 인생과 작품을 더듬어 가며 알게 된 것.

저의 전문 분야는 디자인이지만, 사에키 유조전(2023년)을 준비하는 동안 도록 편집에 참여했습니다. 도록에는 작품이나 출판 이력, 연표 등을 기재하는데, 저는 축적된 사에키 유조에 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그의 인생과 함께 작품을 알아가다 보면 그의 독창성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특히 역동적인 붓의 움직임과 춤추는 듯한 선의 아름다움이 그랬죠. 건물을 정면에서 바라보는 그림이 많은데, 윤곽선에는 기세가 있으며, 세밀한 부분의 묘사는 한 획 한 획이 섬세하며 망설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벽돌을 그릴 때 같은 계열의 색으로 그레데이션을 준 부분이 눈에 띄는데, 물감을 왕성하게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데리고 파리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화가 모리스 드 블라맹크(Maurice de Vlaminck)에게 화풍이 학구적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지만, 탐욕적으로 그림을 그렸던 사에키 유조. 프랑스를 두 번째 찾았을 때 몸과 마음을 추내며 야외에서 그림을 그렸고, 그렇게 완성한 최후의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이 《노란 레스토랑》입니다. 30살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린 기간은 불과 4년 남짓. 그 시간의 끝자락, 파리의 거리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하며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보면 볼수록 새로운 감상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사에키 유조
《노란 레스토랑》
1928년
※상설 전시는 없습니다



관람 포인트

다양한 전시회가 수시로 개최되며, 마르쉐와 조명 장식 등 계절별 행사도 즐길 수 있다. 2층 잔디광장에는 미술관 수호신 《SHIP'S CAT(Muse)》가 방문객을 환영한다.
1·2층은 자유롭게 출입 가능.